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1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유숙임 ☎440-3851 • 담당자 김장기 ☎440-38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인천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위해 협력하기로

- 21일, 인천시-교통공사-교통공사노조,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
 - 무임수송 국비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개량 예산확보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노사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인천교통 공공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련 법적의무 이행 및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개 협약 당사자들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교통이용과 교통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해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개인안전보호구의 착용, 안전보건수칙과 절차를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3개 협약 당사자들은 보편적 교통복지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추진하는 GTX-B 등 도시철도 관련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선진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시민의 편리한 교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월 UTO(무인열차운전)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지난해 도급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통령상 수상, ‘철도안전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협약서 내용


인천 교통 공공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서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는 3백만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인천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직원 안전의식을 향상하며 개인안전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수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3. 인천교통공사 노사와 인천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보편적 교통복지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과 노후전동차 및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인천교통공사 노사와 인천광역시는 적정수준의 안전인력 보장과 개선된 근무형태 도입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종사자 건강권을 보장하며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and 친환경 교통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5. 3자는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인천광역시와 공사는 도시철도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직 직원 등의 근로여건개선, 지하근무자 건강권 확보와 연계한 별도 공간 조성 등 조합원 복지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2 년 4 월 21 일

 인천광역시
시장 박 남 춘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 희 윤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현 기